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보조어와 기타 문법적수단들에 대한 분석

김 형 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휘는 그 뜻을 정확히 알고 바로 써야 합니다. 단어의 뜻을 정확히 모르고 어림짐작으로 쓰면 표현이 맞지 않아 자기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가져올수 있습니다.》

매개 언어에는 어휘적단어들과 함께 각이한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보조어들과 여러 가지 문법적수단들이 있는것만큼 그것들을 잘 알고 옹게 활용할줄 알아야 외국어들을 쉽게 습득할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보조어와 기타 문법적수단들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보조어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자.

보조어는 각이한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면서 의미적단어로 사용된다.

실례로 로어단어결합 《сказал бы》에서 조사 бы는 동사 сказать의 조건법형태를 이루어주면서 추측의 의미를 표현한다. 로어문장 《Я пошел бы.》와 프랑스어문장 《J'irais.》를 비교하여보면 로어에서 《пошел бы》는 프랑스어의 irais와 일치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로어문장에서 추측의 의미가 보조어 бы에 의하여 표현되었다면 프랑스어에서는 어미 ais에 의하여 표현된다.

이러한 류형의 단어결합(의미적단어와 보조어의 결합)과 단어형태들과의 호상관계는 하나의 언어안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실례로 로어에서의 прочту와 буду читать 그리고 프랑스어에서의 Je lirai와 Je vais lire에서는 시간적의미를 하나의 단어내에서 표현할수도 있고 보조어의 도움으로 표현할수도 있다. 이것은 단어의 문법적형태가 어음론적수단과 덧붙이에 의하여 조성될뿐만아니라 보조적단어에 의해서도 조성될수 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언어의 문법구조에서 보조적단어들을 그의 역할에 따라 두가지 부류로 구분할수 있다. 즉 개별적단어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보조어부류와 문장과 단어결합의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는 보조어부류가 있다.

개별적단어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는 보조어부류에는 관사, 조동사, 일부조사, 비교급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속하는데 이 단어들은 문장구성에서 의미적단어들과 함께 쓰일때 그 단어들의 고유한 문법적의미를 지적해준다.

프랑스어에서 형용사 bon의 최상급은 보조어의 도움으로(le plus bon) 표현될수도 있고 종합적수법(le meilleur)으로 표현될수도 있다.

로어에서 형용사 сильный의 최상급은 сильнее에 의하여 표현될수도 있고 보조어의 도움으로(более сильный) 표현될수도 있다.

문장론적관계를 표현하는 보조어의 부류에는 접속사, 접속어(관계대명사)들과 조사들, 보조동사들이 속한다. 접속사는 문장구성과 단어결합에서 문장론적관계를 지적한다.

프랑스어접속사 mais는 단어 혹은 문장들사이의 병렬적관계를 지적하면서 양보나 대립의 의미를 표현한다.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전치사와 후치사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자.

전치사와 후치사는 명사의 문법적의미를 표현하면서 명사가 문장속에 들어가 해당하는 문장론적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문법적수단들중의 하나이다.

전치사는 명사와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들의 앞에 놓이는 보조적단어이다. 전치사는 전치사적단어결합 혹은 전치격적단어결합을 이루고 격형태로서의 굴절과 같은 형태조성적기능을 수행한다.

실례로 영어단어결합 《the book of the student》와 프랑스어단어결합 《le livre de l'étudiant》에서 전치사들(of, de)은 두 명사의 관계를 이루어주면서 두번째 명사를 첫번째 명사에 종속시켜 소속관계를 표현한다. 이 단어결합에 해당하는 조선말단어결합 《대학생의 책》과 로어단어결합 《книга студента》에서 격토 《의》와 격어미 《a》는 영어와 프랑스어의 전치사와 류사한 기능을 수행한다.

전치사는 격형태처럼 명사를 다른 명사에 소속시킬뿐만아니라 대상들사이의 각이한 관계를 표현한다. 즉 공간, 시간, 원인, 목적, 대상, 수단 등 여러 관계적의미를 표현한다.

실례로 프랑스어전치사 de는 소속관계외에 공간(venir de la bibliothèque), 시간(train de deux heures), 원인(sauter de joie), 수단(couper du couteau)도 표현할수 있다.

전치사와 굴절어미가 같은 문법적의미를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전치사는 독자적인 력점을 가지지 못하면서 명사와 어음론적으로 통합되어있다. 전치사와 굴절사이의 차이는 굴절은 단어의 부분으로서 단어의 형태를 변화시키면서 형태론적의미를 변화시키지만 전치사는 단어의 부분이 아니라는것이다.

후치사는 명사의 뒤에 놓이면서 그 명사와 다른 단어들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보조적단어이다. 인유어에서는 후치사가 적게 쓰인다.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관사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자.

관사는 명사와 함께 쓰이는 보조적단어로서 주로 인유어(로만어와 게르만어 그리고 페르샤어)와 아랍어, 마자르어에서 찾아볼수 있다. 슬라브어들가운데서 관사는 별가리아어와 마케도니아어에 있다. 관사는 명사의 표식으로서 명사를 동사나 다른 품사들과 구별하여준다.

례: the act - 행동(명사) to act - 행동하다(동사)

the copy - 복사(명사) to copy - 복사하다(동사)

관사는 명사의 앞에 놓일수도 있고 뒤에 놓일수도 있는데 관사가 앞에 놓이는 언어들로는 영어, 프랑스어, 도이칠란드어이며 뒤에 놓이는 언어들로는 알바니아어, 별가리아어, 스웨리예어, 로트니아어이다.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조사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자.

조사들은 단어의 형태조성을 위하여 쓰이는 조사들과 접속사와 류사하게 문장구성수단으로 쓰이는 조사들로 구분하여 분석할수 있다.

로어조사 бы는 가정법형태조성을 위하여 쓰이며 별가리아어조사 ще는 동사의 미래시칭형태조성을 위하여 쓰인다. 로어조사 ли는 간접물음에서 부문장을 도입하기 위한 접속사로 쓰일수 있다.

례: Я спросил его читал ли он эту книгу.(나는 그에게 이 책을 읽었는가고 물었다.)

조사들은 대체로 문장형태의 조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어형태의 조성을 위하여 쓰인다. 형태조성조사들은 언어들에서 단어의 분석적형태의 조성수단이다.

로어에서 가정법형태를 조성하는데 쓰이는 бы, 영어에서 미정형조성의 to, 도이칠란

드어에서 미정형, 형용사와 부사의 비교급조성의 am, 프랑스어에서의 제롱디프의 조성을 위하여 쓰이는 en과 같은것들이 이러한 기능의 조사들이다.

례: am schnellsten - 매우 빠른

en travaillant - 일하면서 en voyant - 보면서

또한 프랑스어에서 조사 il은 무인칭동사조성에 쓰인다.

례: Il gèle. - 얼음이 언다. Il faut. -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들에서 조사들이 다양한 문장론적 또는 양태적의미를 표현하는 현상들을 찾아볼수 있다. 영어나 프랑스어에서 문장의 구조적형식을 갖추어주기 위하여 쓰이는 경우가 있다. 영어에서 it와 one, 프랑스어에서 il와 on, 도이칠란드어에서 es와 man이 무인칭문과 미정인칭문을 만들어주는 형식적주어의 역할을 수행한다.

례: It is dark.- 어둡다.

Il faut.- 해야 한다.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에서 쓰이고있는 말소리교체와 력점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자.

말소리교체와 력점은 단어와 단어형태의 구별을 위하여 사용된다.

실례로 로어단어 друг에서 r의 з나 ж와의 교체는(друзья, дружить) 다양한 어간들을 구분한다.

з와 ж의 교체는 동사의 형태에서 주로 찾아볼수 있다.

《ВОЗИТЬ - ВОЖУ - ВОЖИШЬ》형태에서 말소리 ж는 굴절어미 y와 함께 1인칭에서의 현재시칭을 표현한다.

자음과 모음교체가 문법적의미표현을 위하여 쓰일수 있다. 모음 o, e의 령어음으로의 교체는 일부 로어명사들의 격형태에서 찾아볼수 있다.

《день - дня, сестра - сестер, земля - земель》에서와 같이 모음교체는 현재시칭조성시에도 찾아볼수 있다.

《носить - ношу, любить - люблю, пускать - пушу》와 같이 일부 언어들에서 말소리교체는 매우 활발하게 쓰인다.

문법적의미를 표현할 때 생기는 어근이나 어간내에서의 어음변화를 굴절어근 혹은 내부굴절이라고 한다. 내부굴절은 영어에서 시칭과 수형태를 조성할 때 쓰인다.

례: foot [fut](발)→ feet [fi:t](발들), man [mæn] (사람) → men[men] 사람들, write [rait] (쓴다) → wrote [rout] (썼다)

다음으로 각이한 언어들에서의 보충법과 반복의 수법에 대하여 분석하여보자.

문법적수단들은 어간과 어근의 어음론적변화, 의미적단어의 보조적단어에로의 이행에 의해서뿐만아니라 서로 다른 어근과 어간의 의미적공통성과 단어들의 반복에 의해서도 생겨날수 있다.

로어에서 он와 ego의 형태들은 두개의 대명사적어근의 의미적공통성에 의하여 생겨난 문법적수단으로서 굴절에서뿐만아니라 어근에서도 차이가 있다.

프랑스어에서 《il le, lui》, 《je, me》, 《tu te》역시 어근에서도 차이가 있는 보충적형태이다. 여기서 서로 다른 형태의 단어들은 각이한 대상에 대한 각이한 개념의 표현이 아니라 하나의 대상에 대한 문법적인 차이 즉 격의미에서의 차이를 나타낸다.

로어의 형태단어 идущи와 шел사이의 존재하는 차이는 시간적의미에서의 차이이다.

서로 다른 어근이나 어간의 단어들이 공통적인 문법적의미를 표현할 때 그 단어들의

형태들을 보충법형태라고 한다. 보충법형태들은 언어에서 드물게 쓰인다.

반복의 수법도 언어들에서 흔히 찾아볼수 있다. 어근이나 어간반복으로 명사의 복수 의미를 표현하는 수법은 주로 인유어와 범아프리카어에서 쓰이며 조선어와 중국어, 일본어에서도 쓰인다.

례: 인도네시아어에서 orang(사람) ⇒ orang orang(사람들)

중국어에서 星(xing)(별) ⇒ 星星(xing xing)(별들)

조선어에서 집(단수) ⇒ 집집마다(복수)

어근반복의 수법은 모든 언어들에 다 있는것이 아니며 일련의 언어들에서 최상급표현을 위하여 쓰인다.

중국어에서 好(hǎo) 좋다 ⇒ 好好(((hǎo hǎo) 대단히 좋다

튀르키예어에서는 첫번째 말소리가 반복되고 거기에 입술소리가 첨가되어 최상급을 표현한다.

례: sara(노란) san sara(대단히 노란)

shura(흰) shun shura(대단히 흰)

hura(검은) hun hura(대단히 검은)

우리는 각이한 언어들에 존재하는 문법적특성들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학생들이 외국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